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명(1368 ~ 1644)의 건국과 발전]

01. 주원장(1328 ~ 1398)

- 서민, 흥건적(紅巾賊, = 홍두적)
- 양쯔 강 하류의 곡창 지대 점령
- 반원(反元)적 사대부와 지주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난징(금릉)에 건국(1368), 연호 홍무(洪武)
- 민족주의 기치 →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 부활

02. ★홍무제의 통치(㉠, 재위 1368 ~ 1398)

1) 유교 국가의 부활

- 몽골 세력 축출과 몽골 풍습 금지
- 성리학(= 주자학)의 관학화
- 학교 설립과 과거제 정비
- 육유(六諭) 반포(1398)

▶ 육유(六諭)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향리 사람들과 화목하고, 자손을 잘 교육 시키며, 저마다 현재에 만족하고, 비위를 행하지 말라.

2) 통치 기반 마련

- 『대명률』·『대명령』 등 법전을 편찬하여 가혹한 형벌 폐지
- ★황제 권한 강화 정책
: 승상 호유용의 모반(1380)
↳ 재상제(중서성) 폐지, 6부를 직속에 두어 국정 직접 통솔
: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 설치
: 도찰원, 통정사 등 설치 → 감찰권, 군사 지휘권 등 장악
- 내각과 환관들의 정치 개입 가능성 확대

▶내각과 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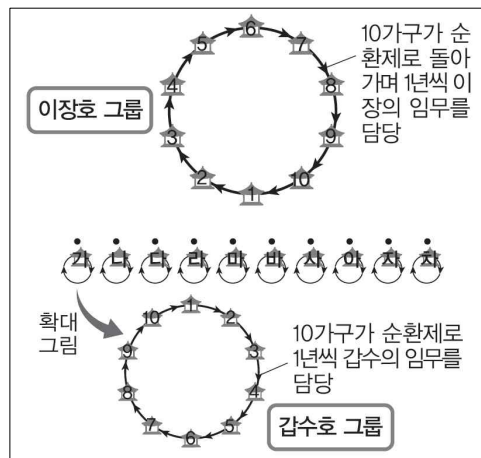
명 황제는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을 두어 신하들의 상주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내각대학사는 사실상 과거의 중서성 승상(재상)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 환관 역시 황제의 측근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환관의 우두머리인 사려감 태감은 내각 대학사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정사에 관여하였다.

3) ★향촌 통제 정책

- 이갑제(里甲制) 실시(1381)
: 이장호 1호와 각 갑의 갑수호 1호가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수리 시설 정비 등을 담당
- 조세·요역의 부과 근거 정비
: 어린도책(魚鱗圖冊, 토지 대장)
: 부역황책(賦役黃冊, 조세 대장 겸 호적 대장)

4) 소극적 대외 정책

- 해금령(海禁令, 중국인의 해외 도항 금지) 실시(1371)
- 조공 무역 허락(3년 1회)



<이갑제(『수능 특강』, p.38)>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명(1368 ~ 1644)의 건국과 발전]

03. ★성조 영락제의 통치(㉠, 재위 1402 ~ 1424)

1) 통치 체제 정비

- 정난의 변(靖難之變, 1398 ~ 1401)을 통해 즉위
- 자금성(紫禁城) 건설 → 베이징 천도(1421)
-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 설치, 동창(東廠)을 설치하여 환관의 정치 참여 허용
- 운하 정비 → 강남 ~ 베이징, 물자 유통 활성화

2) 적극적 대외 정책 추진

- 몽골 원정, 베트남 북부 점령(호 왕조 정복, 1407)
- 티베트, 네팔의 조공국화

3) ★정화(환관이자 무슬림, 1371 ~ 1433)의 해외 원정(1405 ~ 1433)

- 해금 정책 폐기, 7차례의 해외 원정으로 인도양 ~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
- 국력 과시, 조공 체제 확대, 동남아시아 화교(華僑) 진출의 계기



<정화의 항해로, 명(明) 중심의 조공 질서>

명(明)의 영락제는 정화에게 ‘해외의 모든 제후국을 교화’하기 위한 항해를 명하였다. 명 제국의 풍부한 물자와 국력의 강성함을 과시하여 해외 각국을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정화의 해외 원정이 단행되었다. 1405년 제1차 원정을 시작으로 하여 143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정이 단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가 수립 되었으며,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자극하여 동남아시아에 화교 사회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원정에 참가하였던 지식인의 저술을 통해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정화의 대외 원정은 서양의 지리상 발견에 버금가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것이 1498년의 일이다.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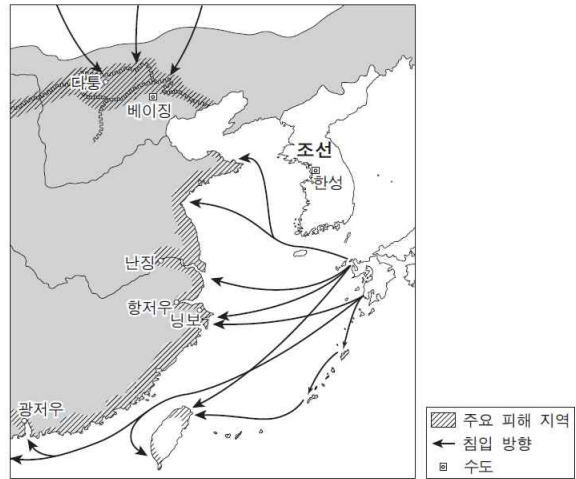
[명(1368 ~ 1644)의 쇠퇴]

01. 정치 혼란 심화

- 어린 황제 즉위와 환관(宦官)의 득세
- 재정 위기의 심화와 농민 봉기

02. ★소극적 대외 정책

- 영락제 사후
- : 베트남의 독립 → 후 레 왕조(1428 ~ 1789) 성립
- **북로남왜(북방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의 화**
- : 토목보의 변(土木之變, 1449)
 - ↳ 영종 정통제(㉔, 재위 1435 ~ 1464), 對 몽골 오이라트 부
- : 경술지변(庚戌之變, 1550)
 - ↳ 세종 가정제(㉑, 재위 1521 ~ 1567), 몽골 타타르 부의 베이징 포위
- : Ningbo의 난(寧波之亂, 1523)
 - ↳ 오우치 가문 對 호소카와 가문, 오우치 가문의 견명 감합선 방화 → 감합 무역 중단, 왜구 출몰



<북로남왜(北虜南倭)의 화>

▶ 김일 무역(1404 ~ 1523)과 왜구

조공 무역은 중국이 주변 국가를 중국 문화권으로 끌어들이고, 주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무역 형식이다. **감합 무역**은 명(明) 대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추진된 조공 무역의 일종이었다. 원래 감합부(勘合符)는 나라별로 무역을 허락하는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는 선박의 수나 인원, 물량이 기록되어 있었다. 중국은 일련번호를 매긴 장부에 감합부를 만들고, 본 장부는 보관한 채 사본을 떼어 상대국에게 준 뒤, 조공을 하러 올 때에는 두 서류를 비교하여 상대와 물량을 확인하고 무역을 허락하였다.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재위 1368 ~ 1394)도 명(明)의 책봉을 받아 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명(明)의 책봉을 받는 것에 대한 일본 지배층의 비판 때문에 책봉 관계는 끝나고, **명(明)과의 무역을 원하던 일본인들은 왜구가 되어 명(明)의 해안에 출몰하면서 혼란하게 하였다.**

- : **관리장성을 새로 쌓고 해금 정책 강화** → 막대한 재정 부담 초래

03. ★신종 만력제(㉑, 주익균, 재위 1572 ~ 1620)

- **내우외환** → 환관의 횡포(內) + 북로남왜의 화(外)
- **내각대학사 장거정의 개혁 정치(1572 ~ 1582)**
- :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 실시[토지 장량(丈量)]
- : **일조편법(一條鞭法) 확대 실시(1573) → 전면 실행(1581)**
- 장거정(1525 ~ 1582) 사후의 혼란
- : 환관들의 정치 개입과 당파 싸움 심화, **입진전쟁 참전 등으로 재정 궁핍**, 가혹한 세금 징수와 기근



<신종 만력제>

04. 의종 민황제(㉒, 재위 1627 ~ 1644)

- 산시(섬서) 지방을 비롯한 각지에서 농민들의 반란
-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 점령 → 멸망(1644)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청(1616 ~ 1636 ~ 1912)의 성립과 발전]

01. ★**태조 고향제**①, 재위 1616 ~ 1626)

- 누르하치(1559 ~ 1626)의 여진족 통합
↳ **팔기제** 기반, 만주 흥경 지방에 **후금 건국(1616)**
- 사르흐 전투(1618 ~ 1619) → 조·명 연합군을 격파하고 심양(瀋陽) 천도(1621)

02. ★**태종 문황제**②, 재위 1626 ~ 1643)

- 흥타이지, **내몽골 정복**, **조선 공격**(정묘전쟁, 1627)
- 부족 명칭 변경(여진족 → 만주족)
- 칭제건원, **국호를 청(淸)으로 변경** → 조선 공격(병자전쟁, 1636)

03. ★**세조 순치제**③, 재위 1643 ~ 1661)

- 이자성의 농민군 격퇴 → 명(明) 장수 오삼계의 인도로 **베이징 점령(1644)**
- 남명(南明, 1644 ~ 1662)의 부흥 운동을 정벌하고 **전 중국 지배**

04. ★**성조 강희제**④, **천고일제(千古一帝)**, 재위 1661 ~ 1722]

- 여진족의 중국화
- **삼번의 난(1673 ~ 1681) 진압**
- **타이완의 반청 세력(정성공 세력) 진압(1683)**
-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1689)
- 외몽골, 칭하이, 몽골 오이라트 중가르부 격파, 티베트 지배
- 1712년 이후 태어난 성인 남자에게는 **인두세 면제**



<삼번의 난>

05. ★**세종 응정제**⑤, **냉면제왕(冷面帝王)**, 재위 1722 ~ 1735]

- 지정은제(地丁銀制)의 전국적 실시
- 카흐타 조약 체결(러시아와 국경선 확정, 외몽골, 1727)
- **군기처 설치(1732)**
↳ 최고 권력 기구, **군기대신·군기장경**, 정보와 정책 결정권의 황제 장악 → 6부의 행정권 약화
- **비밀 상주문(上奏文) 제도**
↳ 지방관이 직접 황제에게 상주문을 전달하는 비밀 정보 수집 방식 도입
- 『고금도서집성』 편찬(1725), 『대의각미록』 간행·반포(1729)

06. ★**고종 건륭제**⑥, **십전노인(十全老人)**, 재위 1735 ~ 1795]

- **몽골, 신장, 티베트 등 정복(최대 영토 확보)**
- 베트남, 타이, 미얀마 등과 조공·책봉 체제를 통해 우호 관계 유지
- 『사고전서(四庫全書)』 첫 벌 완성(1782) → 한족 지식인 회유, 사상 검열 시도
- 영국의 **매카트니 사절단 방문(1793)** → 열하에서 알현, 무역 확대 요구는 거절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만주족의 한족 지배 정책]

01. 통치 방식



1) ★강경책

- 변발령(留頭不留髮, 留髮不留頭)과 호복(胡服) 강요
- 만한 통혼(滿漢通婚) 금지
- 금서 지정, 문자옥 등 사상 탄압

▶문자옥(文字獄)

청 조정은 청을 비방하거나 만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렸다. 강희제와 옹정제는 명(明)의 연호를 사용하거나 청을 오랑캐라고 비판한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특히, 건륭제 때 '문자옥'이 많이 일어났다.

2) ★회유책

- 만한 병용(滿漢 併用)제 [이한제한(以漢制漢)]
 - : 과거제를 통해 한족 등용, 신사(紳士)의 특권 인정,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임명
- 한족의 전통 문화 존중
 - : 유교 문화 존중
 - : 대규모 편찬 사업에 한족 지식인 참여 유도

3) 제국 내에 편입된 다민족 융합 정책

- 한족은 전통적인 군현제로 통치
- 몽골, 티베트, 신장 등은 지역의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 정책 시행(번부 지역)



02. 통치 제도

1) 중앙 정치

- 명(明)의 통치 제도(내각, 6부 제도) 수용, 황제 독재권 강화

2) 지방 정치

- 18성(省) 설치, 순무·총독 임명 →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아 통치
- 보갑제(保甲制) 완성



<만주 팔기>

3) ★군사 제도

- 팔기제(八旗制)
 - : 부족제이자 군사제, 깃발로 구분된 8군단
 - : 만주 팔기 · 한인 팔기 · 몽골 팔기
- 녹영(綠營)
 - : 항복한 한인 병사로 구성, 각지의 치안 담당

[청(1616 ~ 1636 ~ 1912)의 쇠퇴]

- ★백련교의 난(1796 ~ 1804)으로 만주족의 지배력 약화
 - : 반란 진압 과정에서 재정 악화, 팔기제의 한계 노출 등 청(淸)의 세력 약화



▶정화의 대원정과 신항로 개척의 비교

| 정화의 원정(1405 ~ 1433) | 서양의 신항로 개척(1488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사상 확립 •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확립 • 화교 진출의 계기 •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 확대 • 해금령의 일시적인 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지역과 무역 확대 • 경제적 이익 확보 • 유럽 사회 변혁의 계기 • 상업적 이득을 계기로 근대화 성공 • 적극적 해외 진출로 유럽의 세계 질서 주도 |

▶청(淸)의 중외사상

- ① “인(仁)한가 포악한가가 화이를 구분하는 기준이지, 태어난 땅은 화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없다. 순 임금의 동이(東夷)사람이고 문왕은 서융(西戎) 사람이지만 그 성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 『대의각미록』(1729)
- ② 1793년 열하의 이궁(離宮)으로 건륭제를 방문한 영국 대사 매카트니는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세 번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을 세 번 거듭하는 인사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 삼배구고두)를 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는 중국에서 신하가 황제를 배알할 때의 인사법이다. 매카트니는 건륭제의 오른 손에 키스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절충을 통해 한쪽 다리를 땅에 대는 인사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그를 조공 사절로 생각하고 사신의 베이징 주재, 항구의 개항, 영국인 거류지 허가를 요구한 영국 측은 무역 확대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그 대신 건륭제는 영국 왕에게 국서와 고개지의 『여사잡도』를 비롯한 많은 선물을 보냈다. 건륭제가 영국 왕에게 보낸 국서에는 “너는 멀리 해외에 있으면서 줄곧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멀리 사신을 파견하여 천자의 장수를 축복하고 선물을 바쳤다. 그 공손한 태도에 매우 만족한다.” 고 적고 있다.

개념 Check

- ① 명의 황제 ()는 토지 대장인 어린도책과 호적 대장 겸 조세 대장인 부역황책을 작성하게 하였다.
- ② 명의 홍무제는 과거제를 개혁하고 ()를 실시하여 향촌을 통치하였다.
- ③ 명의 황제 ()는 자금성을 건설하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④ 명은 ()의 항해를 통해 조공 체제를 확대할 수 있었다.
- ⑤ 청의 ()는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정벌하였으며, 러시아와 ()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⑥ 청의 군대인 ()은 중국 정복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만주족과 몽골족은 물론 한족으로도 구성되었다.
- ⑦ 청의 ()는 티베트와 신장, 몽골, 타이완을 포함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다.